

Scottish Highland Dress의 변천에 관한 연구*

송 미 경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ottish Highland Dress

Mi-Kyung Song

Lecturer, Departmen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origin and developing process of Highland Dress as a Scottish national dress has been discussed in this study. Parameters affecting transformation process of Highland Dress from regional to national dress over the modernization period during 19 C was analyzed and compared by sociological aspect. Anthony Giddens social change was applied and divided into three main factor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nalysis.

The basic requirement of the theory of social change is visual recognition of any cultural changes. Highland Dress as a Scottish national dress has established during modernization in Europe within short period (18 C- early 20 C) and the Highland tartan as a military dress was transformed to be a civilian dress during 19-20 C. It shows social changes affecting on costume pattern and eventually costume in particular time could be an indicator of social changes.

Throughout the study of the functional role of costume in Scotland is able to clarify the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phenomenon through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Key Word : Highland Dress, Anthony Giddens's theory of social change, area study, Industrial Revolution, the Abolition and Proscription of the Highland Dress(1745). 하일랜드 드레스, 사회변동론, 지역연구, 산업혁명, 복식금지령.: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복식을 통한 Scotland 지역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지역연구란 자국(自國) 이외의 특정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으로 반드시 그 지역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해서 행해진다.¹⁾ Scotland 일부 지방의 복식이었던 Highland Dress²⁾가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Scotland를 대표하는 national dress로 변천되는 원인을 사회 변동 요소와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복식을 통해 Scotland 지역사회를 연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주제로 하일랜드 드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하일랜드 드레스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스코틀랜드 민족복은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급속한 변화는 근대화 시기의 변동요소와 관계가 있었다. 즉 복식이 사회 변동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근대화 시기에 성립된 스코틀랜드 민족복은 현재까지 평상복에서 예복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업과 문화 산업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민족복의 전통과 현재, 미래가 접목되는 좋은 예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더불어 현지조사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자료를 통한 스코틀랜드 복식의 역사 뿐만 아니라 실증적 연구를 위해 1996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Scotland 현지에 거주하면서 참여관찰법³⁾을 활용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하일랜드 드레스 중 남성복식만을 다루었다. 연구의 제한점은 스코티시 정리(Scottish Clearance)의 결과로 파생된 스코티시 이민에 따른 스코틀랜드 민족복의 문화전파와 문화이식 현상을 깊게 다루지 못한 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

사회변동(Social change)이란 사회구조(사회적 행동과 상호작용의 유형)에 발생하는 중대한 변화를 말하며, 규범(행동·규칙)가치, 문화적 생산과 상징 등에 구현되어 있는 사회구조의 결과와 표상에 일어나는 변화도 포함한다.⁴⁾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영국의 사회학자로서 사회 변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 정치 조직, 그리고 문화적 요인 3가지로 들었다. 지난 200년 동안의 근대화시기에 있어서 급속한 사회 변동의 속도는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영향력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산업 자본주의의 영향이다. 정치적 영향력으로 현대의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 발전이 포함된다. 문화적 영향력으로 오늘날 문화적 요인도 사회 변동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학의 발전과 사고의 세속화는 일차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⁵⁾

2. 클란(clan)제도

스코틀랜드의 민족복은 하일랜드⁶⁾ 사회의 독특한 제도인 클란과 관련이 있다. 하일랜드에서 클란 제도는 11~15세기에 융성하였고, 1745년 콜로덴(Culloden) 전투 이후 완전히 소멸되었다. 'clan'이나 'clanna'라는 단어는 자녀라는 뜻이며, 하일랜드 사회의 기원은 부족(tribal)이었다. 1748년 런던의 의회가 하일랜드의 약화를 위해 'Heritable Jurisdiction Act'를 제정함에 따라 클란제도는 와해되었다.⁷⁾

3. 사회변동과 복식과의 관계 연구

우리나라에서 복식현상을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자⁸⁾는 임재영, 유수경, 박길순, 김순심, 이유헌, 박찬부, 유태순, 이은주 등이 있으며, 외국⁹⁾에는 선정희, Hamilton, Arthur, Williams, Jirousk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복식과 문화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연구한 연구는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 민족복이나 민속복 연구를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연구한 사례는 드문 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이 외국의 민족복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 복식사 분야 연구가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Ⅲ. 사회변동이론과 하일랜드 드레스

스코틀랜드의 정치·경제·문화 요소의 사회 변동으로 인하여, 하일랜드 타탄¹⁰⁾과 하일랜드 드레스는 근대화시기인 19세기 초엽에 스코틀랜드의 민족복으로 변화되었다. 사회변동이 복식양상에 미친 효과¹¹⁾는 어떠한지 기든스의 근대화 시대의 사회변동 요소와 하일랜드 드레스의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스코틀랜드의 민족복 성립을 살펴보면 세 단계의 과정을 밟는다. 먼저 1707년 연합법과 자코바이트 반란 이후 산업혁명과 관련된 경제적 요소가 스코틀랜드의 복식양상을 잉글랜드(English)화시켰고, 조지 4세의 스코틀랜드 방문과 빅토리아 여왕의 하일랜드에 대한 관심이 타탄을 스코틀랜드 민족복의 상징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19세기 후반 하일랜드 연대의 군복의 형태가 현대의 스코틀랜드 민족복 형태 성립의 바탕이 되었다.

이들 변화 요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로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적 요인

1) 산업혁명 이전

잉글랜드(England)는 앤(Ann)여왕을 마지막으로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될 것이 확실해지자 스코틀랜드가 이전처럼 잉글랜드와 적대관계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잉글랜드는 경제적으로 이권을 보장하고 법과 교회와 통화제도의 독립을 약속하며 스코틀랜드에게 국가 통합을 제의함으로써 1707년 연합법(the Act of Union)에 의해 대영제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으로 양국의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통합 후에는 당장에 눈에 띄만한 경제적 혜택이 보이지 않았다. 1715년 스튜어트 왕실의 복구를 위해서 벌인 자코바이트 난(rebellion of Jacobites)은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좌절을 이용한 것이었다.¹²⁾ 스코틀랜드는 로랜드(Lowland)와 하일랜드로 지리상 구분되지만, 18세기까지 인종과 언어·경제·복식까지도 구별이 되었다. 스코틀랜드가 1707년 연합법에 의해 통합될 때 로랜드 복식은 이미 유럽대륙이나 잉글랜드(English)의 복식과 동일하였고, 하일랜드의 아버딘(Aberdeen)과 같은 대도시의 복식은 로랜드의 복식과 동일하였으며,¹³⁾ 농부의 옷조차도 잉글랜드와 같았다. 그러나 하일랜드의 외진 곳은 18세기 초엽까지도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여 외부와의 접촉이나 상업은 행상인에 좌우되었다. 자코바이트난 이후 하일랜드 경제는 영국인(English) 자금 투자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되었다.¹⁴⁾ 스코틀랜드의 각 교구의 목사들이 1795~1814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745년 자코바이트 반란 이후 하일랜드인의 복식이 급격히 변화되었다.¹⁵⁾

2)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중반이후 특히 하일랜드에서 복식의 변화는 다음 3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가내수공업으로 자가(自家) 생산하던 직물로 옷을 해 입는 것보다 직물공장에 취업

을 하거나 아마를 재배하여 얻는 수입으로 옷을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으며 둘째, 취업으로 인한 고정수입이 생김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셋째 영국인의 자본 유입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도로·통신의 발달로 가계가 많이 생겼고 이로 인한 외부 세계 접촉이 많아지고 범위가 넓게 되었으며, 유럽에 직물 수출국으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1747년 복식금지법 시행 이후 하일랜드 가정에서 자가 생산되었던 타탄 금지됨에 따라, 질 좋은 영국산 광폭의 모직물로 대체되어 전 하일랜드에 사용되었으며, 타탄 생산은 로란드에서 대규모의 직조 산업으로 발전되었다. 타탄 업자들은 하일랜드의 잊혀져 가는 타탄을 수집하였고, 이 시기 로란드에서 생산되었던 타탄은 하일랜드 연대의 군복으로 사용되거나, 신대륙의 노예들을 위한 옷감으로 수출되었다.¹⁶⁾ 현대에 와서 타탄과 킬트는 스코틀랜드의 직물 수출,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 국가 이미지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타탄이 갖는 현대적인 이미지와 단순성과 민속풍의 유행으로 많은 디자이너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 정치적 요인

1) 1707년 연합법

1707년 연합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연합법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로 타탄은 유행되었고 동시에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자코바이트¹⁷⁾ 여성들은 타탄을 플레이드 뿐만 아니라 가운, 승마복, 침대, 커튼, 신발, 바늘방석까지도 이용했다. 1745년 스튜어트 왕자(Prince Charles Edward Stewart)는 그의 군대 군복으로 하일랜드 드레스를 지정하여, 타탄은 자코바이트주의(Jacobitism)의 상징이 되었다.¹⁸⁾

2) 1746년 복식금지법

하일랜드 드레스가 스코틀랜드 민족복으로 변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는 것이 1746년 하일랜드 복식 착용을 금지한 법(Abolition and Proscription of the Highland Dress)이다. 이 법은 1745년 자코바이트들이 영국 정부군과 싸웠던 콜로덴(Culloden) 전투에서 패한 뒤, 영국정부가 자코바이트를 지지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부과한 벌로서 타탄은 정부에 대한 반역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1746~1782년 사이에 행해진 금지법은 이중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나는 하일랜드인의 명백한 시각적 상징인 하일랜드 복식과 타탄의 파괴와 영국민(British)으로 관념의 전환이었고, 다른 효과는 하일랜드 직물이 금지된 결과 영국(British) 직물의 수요가 증가된 점이었다.¹⁹⁾

3) 하일랜드 연대(Highland Regiments)

하일랜드 드레스가 외부세계에 알려진 것은 하일랜드 연대의 군복으로 킬트가 채용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745년 자코바이트 반란 때 로던 하일랜드(Loudon's Highland)가 설립되었으며, 이 군대가 영국 군대 중에서 정형화된 하일랜드 드레스를 입었다. 이것이 후일 스코틀랜드 민족복의 기본이 되었다. 1782년 하일랜드 복식금지법 해제 이후 완전한 하일랜드 드레스가 남아 있는 곳은 군대였다. 18세기말 군대에서 벨티드 플레이드(beltde plaid)가 불편하고 그 당시 군복 상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부를 제거하고 치마 뒷부분 주름은 고정되었다. 19세기 초엽, 하일랜드 원주민 옷은 타탄 소재의 화려한 색상의 스커트로 완전히 변했다.

하일랜드 드레스의 주요 구성인 상의는 군복에서 변형된 것이다. 크림전쟁 때 프랑스군복의 영향을 받은 긴 튜닉(tunic)은 킬트에 적합하지가 않아, 4개의 플랩(flap)으로 대체된 것이 듀블레(doublet)라고 불리는 상의이며 1866년 가운터릿 커프스(gauntlet cuff)가 채용되었다. 빅토리아시대부터 현재까지 스포츠 자켓에도 가운터릿 커프스와 견장(military shoulder straps)이 있다. 1875년 이후 하

일란드 연대의 명성이 제일 높을 때의 군복이 현재 하일란드 정장 드레스(full Highland Dress)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 이는 당시 스코틀랜드인의 마음 속에 민족 정체성과 더불어 제국주의의 자부심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이프 악대나 소녀들이 춤을 출 때 입는 무용복을 전통적인 스코틀랜드의 하일란드 드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에드워드(Edwardian : 1901~1910)시대의 군복과 같은 것이다.²⁰⁾

4) 조지 IV세의 스코틀랜드 방문

하일란드의 문화·사회는 콜로던 전투이후 조지 II세 때의 복식금지법과 무장 해제법으로 인하여 완전히 붕괴되었다. 1822년 조지 IV세의 스코틀랜드 방문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깊게 작용하였다. 조지 IV세의 접대를 맡은 윌트 스콧 경은 환영행사 때 각 하일란드 클란 장에게 고유의 클란 타탄을 사용한 하일란드 드레스를 입고 올 것을 요구하였다.²¹⁾ 고유의 타탄이 남아 있지 않거나 없는 부족장들은 타탄 회사에게 독특한 클란 타탄을 의뢰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클란 타탄들이 연구되었고 만들어졌다. 조지 IV세의 방문이 계기가 되어 하일란드 드레스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민족복으로 전환되었으며 타탄이 전 스코틀랜드에서 유행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부유층과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한 하일란드 드레스의 형태는 타탄으로 만든 슈트였지, 군복의 영향을 받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민족복 형태는 아니었다.

3. 문화적 요인

1) 복식 금지법 이후 하일란드 클란 사회의 붕괴
1745년 콜로던 전투이후 영국 정부가 시행한 무장해제법은 하일란드 클란 사회를 붕괴시켰다. 또한 타탄 착용을 정부에 대한 반항의 상징으로 인식하여 정부군 소속을 제외한 스코틀랜드의 남성들에

게 타탄과 하일란드 드레스 착용을 금지시켰다. 1745년 이후 많은 하일란드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제1차 정리(Clearance)가 일어났다. 이때 신대륙으로 이주한 하일란드인들은 타탄과 하일란드복식을 계속 착용함으로써 신대륙에 하일란드 문화의 이식현상이 나타났다. 그후 경제사정으로 인한 제2차 정리와 더불어 일어난 신대륙에서의 하일란드 문화이식은 현재까지 스코틀랜드인의 후예를 내세우며 특히 미국에서 킷트를 입고 수 천명이 모여 하일란드 게임을 즐기고 있다.²²⁾

2) 빅토리아 시대의 낭만주의(Romanticism)

빅토리아시대의 유럽과 영국에서 유행하던 사조는 낭만주의였다. 이러한 시대사조는 하일란드 복식의 부흥을 가져왔다. 1745년 콜로던 전투 이후 하일란드 사회가 와해된 후 영국인들은 원시인들의 낭만을 위협에 처한 종족의 매력과 결합시켰다.²³⁾ 연구자는 빅토리아시대에 타탄과 하일란드 복식이 유행한 것은 영국인들이 하일란드인에게 가질 수 있는 보상심리의 일종이라 생각한다. 즉 자신들이 파괴했던 하일란드인들과 문화에 대한 죄책감과, 급격한 산업사회로 변화된 잉글랜드에 비하여 개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연, 무장해제법과 복식금지법에 의해 흩어진 하일란드 클란사회 등에 대한 향수 등이 합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빅토리아여왕의 하일란드에 대한 관심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첫째, 유럽 귀족층 패션에 타탄이 유행할 수 있었던 요소를 제공하였다.²⁴⁾ 둘째, 산업혁명 이후 하일란드는 귀족층과 부유층의 휴양지와 사냥터로 변하였으며, 곧이어 제 2차 정리(Clearance)가 추진되었고, 많은 하일란드인들은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어, 타탄과 하일란드 드레스의 문화이식이 일어났으며, 트위드(tweed)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셋째, 이 두 번째 요소가 클란 타탄에 헌팅 타탄과 드레스 타탄을 추가하였다. 빅토리아시대 이전, 타탄에는 클란 타탄이 있었다. 그러나 화

학 염료의 발달과 더불어 하일랜드가 상류층과 부유층의 휴양지와 사냥터로 바뀌게 됨에 따라 사냥을 갈 때 주로 입는 짙은 색상의 헌팅 타탄(hunting tartan)이 나타났으며, 무도회가 열릴 때 여성들의 드레스에 사용된 드레스 타탄도 등장하였다.

3)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의 강화

현대 하일랜드 드레스착용과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1707년 연합법이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발전을 약속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연합이라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문화적인 연합이라 할 수 있는 영국민(British)의 정체성은 18세기부터 19세기를 거쳐서 단일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민이라는 정체성은 제 1차 세계대전 때 절정에 이르렀지만 전쟁이 끝난 후 웨일즈인들과 스코틀랜드인들은 잉글랜드인들을 마치 외국인 바라보듯 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영국의 경제적 번영과 복지국가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를 잉글랜드에 가깝게 만들었지만, 그후 경제문제가 심각해지고 제국이 수축되면서 게일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²⁵⁾ 1999년 5월 6일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영국의회와 독자 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부분적으로 독립된 국가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현대 하일랜드 드레스의 착용은 민족 정체성의 표현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영국에서 실시된 스코틀랜드 의회 부활에 관한 국민투표, 1998년 6월 20일 스코틀랜드 민족당 행진에 참가한 다수의 사람들이 하일랜드 드레스나 타탄을 착용한 것, 1998년 여름 스코틀랜드 축구팀의 월드컵(World Cup) 결승전에 참가 등에서 하일랜드 드레스의 착용 붐이 일어났다. 현재 타탄은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 표현 뿐 만 아니라, 펑크(punk)패션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타탄이 콜로던 전투이후 정부에 대한 반항으로 인식되어 사용금지령이 내려진 것과 결부된 것으로, 펑크족들은 기성 세대에 대한 반발, 기득권에 대한 반발의

상징으로 타탄을 사용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복식이란 물질, 사회, 정신적 산물이 모두 표현되는 총체적 산물로서 사회 변화에 따라 전체의 특성을 표현 할 수 있다.

사회변동은 급속한 시간 내에, 눈에 띄이는 변화가 인지되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스코틀랜드의 민족복인 하일랜드 드레스의 변화는 기든스의 근대사회 변동이론의 기본 전제를 충족한다고 본다. 먼저 시간의 변이사향으로 스코틀랜드의 민족복은 유럽의 근대화 시기인 18세기~20세기 초엽에 성립되었다. 하일랜드 연대 군복의 영향을 받아 일반인의 복식으로 수용되었을 때, 옷의 형태 변화가 일어났다. 스코틀랜드 민족복은 사회변동에 따라 복식이 변화되어, 복식이 사회변동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예임이 증명되었다. 기든스의 사회변동이론에서 근대사회 변동요소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적용하여 스코틀랜드 민족복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요소로 1707년 연합법과 1745년 콜로던 전투 이후의 복식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타탄은 민족주의를 상징하게 되었다. 1822년 조지 IV세의 스코틀랜드 방문으로 타탄과 하일랜드 드레스의 부활을 가져왔고 하일랜드 드레스는 민족복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엽의 스코틀랜드 민족복은 일반적으로 타탄을 이용한 슈트였다. 하일랜드 드레스 착용 금지법 기간동안 하일랜드 연대는 하일랜드 드레스를 군복으로 입고 외부세계에 하일랜드 드레스를 알렸다. 빅토리아시대 이후 하일랜드 군대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1875년 이후 군복 형태가 현재 스코틀랜드 민족복으로 정립되었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하일랜드의 경제구조를 변화시켰고 직조와 의류생활의 변천을 가져왔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스코틀랜드의 정리(Scottish Clearance)는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및 신대륙으로의 이민의 결과를 낳았고 이에 따른 복식의 문화이식현상이 발생했으며, 영국내에서 하일랜드 드레스는 부유층을 상징하였다. 19세기 초엽부터 타탄 산업이 발전되어 현재까지도 스코틀랜드는 직조산업과 타탄을 이용한 고품가가치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문화적 요소로, 빅토리아시대 사조인 낭만주의는 산업사회에 대한 반동으로 자연의 회귀와 사라진 하일랜드 사회에 관심이 많았으며, 빅토리아여왕의 하일랜드에 대한 사랑은 유럽 상류층에서 타탄과 하일랜드 드레스의 유행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빅토리아시대 하일랜드 연대의 군복이 스코틀랜드 민족복의 형태로 성립된 저변에는 스코틀랜드인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표현이나타난 것이다.

현대에 와서 더욱 거세지는 민족 정체성의 표현으로 타탄과 킬트는 가문·민족·국가를 상징하는 도구로서 기념품에서 예복까지 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펑크 패션에서는 18세기 타탄과 하일랜드 복식금지령의 의미를 계승하여,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 상징으로 타탄 사용을 인식하여 타탄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대 패션에서도 타탄과 하일랜드 드레스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작품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스코틀랜드 후손들은 킬트를 입음으로 문화전파와 문화이식의 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스코틀랜드의 타탄과 킬트 착용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적 지역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복식사나 민족복의 연구도 연계학문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스코틀랜드 민족복 착용은 제3세계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 찾기와 민족복 착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복식을 통해 전통과 민족의 정체성 표현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용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민족과 국가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스코틀랜드 이민 후예들의 하일랜드 복식에 관한 문화이식 현상을 연구하면 사회변동에서 정체성을 표현하는 복식의 기능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C R MacKinnon, 《Scottish Tartans & Highland Dress》, Collins: Glasgow & London, 1961.
- Donald C. Stewart, 《The Setts of the Scottish Tartans》, Oliver and Boyd: Edinburgh, 1950.
- George F. Collie, 《Highland Dress》, Penguin Books: London, 1948.
- Hugh Cheape, 〈Researching Tartan〉, 《Costume》, No. 27, 1993, The Journal of the Costume Society.
- Hugh Cheape, 《Tartan》, the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Edinburgh, 1995.
- J. Telfer Dunbar, 《History of Highland Dress》, B. T. Batsford Ltd.: London, 1962.
- Jean A. Hamilton, James W. Hamilton, 〈Dress as a Reflection and Sustainer of Social Real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7 #2 Winter, 1989.
- Jean A. Hamilton, 〈"The Silk Worms of the East Must Be Pillaged": The Cultural Foundations of Mass Fash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4 Summer, 1990.
- Jemmi Calder, 《The Wealth of a Nation, National Museums of Scotland》(Edinburgh), 1989.
- John Telfer Dunbar, 《The Costume of Scotland》, Batsford: London, 1989.
- Rddy Martin 著, 김현수 譯, 《왕실 스코틀랜드 영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 Rennie McOwan, 《Tartans-the facts & myths-》, Jarrold Publishing: Norwich, 1996.
- W. A. Thorburn, 〈Military origins of Scottish National Dress〉, 《Costume》, No. 10, 1976, The Journal of the Costume Society.
- 박지향,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1997.
- 박찬부·강혜원, 〈한국 복식 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제 22호, 한국복식학회, 1994
- 앤터니 기든스 옮 김미숙 외 譯,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1997.

- 영국사연구회 옮김, 《옥스퍼드 영국사》, 한울아카데미, 1994.
 - 이상수, <英國의 對外政策에 끼친 자코바이트의 影響, 1716~1735>,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정혜정, <19·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코틀랜드 Tartan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홉스 보음, 랑거 편. 최석영 譯,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서울, 1996.
- 1) 문옥표, <한국인류학의 지역연구 동향>,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출판, 1997, pp.93~94.
 - 2) 타탄을 소재(素材)로 한 킬트를 광의(廣義)로 하일랜드 드레스라고 하며 현재 평상복에서 예복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하일랜드 드레스는 예복과 평상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의(자켓과 튜블레)와 하의(킬트)와 장신구로 구성된다. 《복식》44호 pp.5~17. 참고.
 - 3) 리처드 M. 도슨/나경수 編譯, 《민속조사방법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pp.18~23.
 - 4) W. E. Moore, <Social 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Vol. 14, The McMillan Co. and Free Press, 1968, p.336.
 - 5) 앤터니 기든스, 김미숙 외 옮김,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1988, pp.490~497.
 - 6) the Scottish Highlands라고 한다. 영국 스코틀랜드를 지형조건과 문화에 따라 나눌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서해안의 클라이드(Clyde)만 근처의 덤바턴(Dumbarton)에서 동해안의 스톤헤이븐(Stoneheaven)에 이어지는 선의 북서쪽에 있다. 게일인(Gaelic)의 관습과 문화가 이곳에 남아 있다.
 - 7) E P Harrison, 《Scottish Estate Tweeds》, Johnstone of Elgin, 1995, pp.11~23.
 - 8) 임재영, <조선 후기 복식 발달의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 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1945~1990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김순심, <중국 연변 조선족의 복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이유경, <우리나라 양복수용 과정의 복식변천에 대한 연구>, 《복식》, 제 26호, 한국복식학회, 1995, pp.123~144.
박찬부, <한국 복식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복식》제 22호, 한국복식학회, 1994, pp.23~44.
유태순, <채독 한국여성의 문화이식>, 《비교민속학》창간호, 1985.
 - 이은주,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9) 선정희,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 《복식》제 41호, 한국복식학회, 1998, pp.139~152.
Jean A. Hamilton, <Silkworms of the east must be pillaged: The cultural foundations of mass fash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Vol.8(4), pp.40~48.
Jean Hamilton, <Mass fashion as threat in context and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Vol.9(2), 1991 Winter, pp.25~32.
Linda Boynton Arthur, <Cultural Authentication Refined: The Case of the Hawaiian Holoku>,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Vol.15(3), pp.129~139.
Patricia Williams, <Festival, Folk Dress, Government and Tradition in Twentieth Century Czechoslovakia>, 《Dress》Vol.23, 1996, pp.35~44.
Charlotte A. Jirousk, <Dress as Social Policy: Change in Women's Dress in a Southwestern Turkish Village>, 《Dress》Vol.23, 1996, pp.47~62.
Charlotte A. Jirousek, <From "Traditional" to "Mass Fashion System" Dress Among Men in a Turkish Villa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15(4), pp.203~215.
 - 10)
 - 11) Marilyn J. Horn, Lois M. Gurel(1981), p.1.
 - 12) 박지향, <영국사>, 까치, 1996, p.340.
 - 13) Stuart Maxwell & Robin Hutchison, 《Scottish costume》, A. & C. Black, 1958, p.80.
Rosalind K Marshall, 《Costume in Scotland Portraits 1560-1830》, Scotland National portraits Gallery, 1986, p.5.
Marjore plant, <Clothes and the Eighteenth Century Scot>, 《The Scottish Historical Review》, Vol.27 No.103 1998, 4, p.1.
John Telfer Dunbar(1989), p.15. 1690년경 농부의 옷으로 추정되는 모직 suit이 Barrock, Wick에서 출토되었다.
 - 14) Jean A. Hamilton, <"The Silk Worms of the East Must Be Pillaged" : The Cultural Foundations of Mass Fashion>, 《Textile Research Journal》, pp.43~44.
 - 15) Jean A. Hamilton(1991), <Mass Fashion as Threat in Context and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9 #2 Winter, 1991, pp.2

- 5~32. :그 보고서에는 교구민의 급격한 복식 변화를 사회변동의 징조로 해석한 목사들이 많았다.
- 16) Hugh Cheape(1995), pp.52~54.
- 17) 자코바이트란, 1688년 명예혁명으로 왕위를 물러난 스튜어트왕조의 제임스 II세와 그 자손이 다시 영국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스튜어트왕조의 회복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상수, <英國의 對外 政策에 끼친 자코바이트의 影響, 1716~1735>,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8.
- 18) Hugh Cheap(1995), p.26.
- 19) Sinclair, J. (Ed). (1795~1814), *Statistical account of Scotland*, Vol. 10, p.24.
Jean A. Hamilton(1990), p.44에서 재인용.
- 20) W. A. Thorburn(1976), pp.30~37.
- 21) Hugh Cheape(1995), pp.49~50.
- 22) Newsweek, 1978.7.24, p.88.에서 재인용.
Marilyn J. Horn, Lois M. Gurel(1981), 125.
- 23) Hugh Trevor-Roper(1996), p.65.
- 24) 귀족층을 중심으로 특히 여성복과 아동복에 많은 타탄이 사용되었으며, 타탄으로 만든 술도 일반인에게까지 유행하였다.
- 25) 박지향(1997), pp.311~514. :1986년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 인식조사에 의하면, 스코틀랜드인의 경우, 영국인으로서보다는 스코틀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과반수라는 사실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